

# 텔레비전에 결박당한 현대인의 무기력한 일상

장 필립 두생의 《텔레비전》



문학사상사/A5신/246면/6000원

시인 황지우의 조각 <하루 중일 TV를 禪하다>는 통통하게 살이 오른 선승(禪僧)인 듯한 사람이 팔을 괴고 모로 누워 텔레비전을 보는 모습이다. 시인은 이 조각을 설명하면서 “일요일 내내, 오른팔로 머리를 괴다가 빠근해지면 왼팔로 괴고는, 추욱 늘어져 죽어라고 TV만 보고 있는, 스스로를 모독하고 있는 것 같은 어떤 덩어리 일 뿐인 노곤한 몸뚱어리 : ‘그래, 난 이거 벗어날 수 없지’ 하고 인정해버리고 나니까 문득, 뭔가 환해져 방바닥이 거울처럼 느껴졌던 적이 있”다고 고백한다.

황지우처럼 벗어날 수 없다고 인정해버리면 오히려 초탈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장 필립 두생의 소설 《텔레비전》(조은섭, 문학사상사)에서 주인공은 텔레비전에 대해 “그래, 난 이거 벗어날 수 없지” 하고 인정하지 못한다. 그는 어느 날 문득 텔레비전을 끄고 더 이상 텔레비전을 보지 않기로 결심한다.

**“텔레비전은 무기력을 조장한다”** 주인공은 프랑스의 대학교수다. 그는 안식년을 얻어 “회화와 정치 권력간의 관계에 관한 포괄적인 글”을 쓰기 위해 독일 뮌헨에 머문다. 여름 동안 아들과 임신한 아내를 이탈리아로 휴가를 떠나고 그는 홀로 집에 남는다. 그가 텔레비전을 끄고 더 이상 보지 않기로 한 것은 아내와 아들이 떠나고 프랑스 일주 자전거 대회를 보고 난 직후였다. 몇 달 전부터 오후에 서너 시간씩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자신의 행동이 붕 뜬 것처럼 생각됐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의 정신과 텔레비전 영상 사이에서는 어떤 최소한의 교환도 이뤄지지 않고, 텔레비전이 제공하는 세상 쪽으로 우리의 최소한의 투영도 비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들의 따뜻한 마음이 없는, 감성과 통찰력을 지니지 않은 텔레비전 영상은 결코 어떠한 꿈이나 공포도 악몽이나 행복도 보여줄 수 없으며, 도약이나 비약도 일으키지 못하고 무기력을 조장하며 우리를 안심시키려 든다”고 비판하고, 일상적인 생활과 연구를 위한 활동을 해나간다. 마침 위층의 우즈 부부가 휴가를 떠나면서 집안의 화초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그러나 텔레비전을 끄고 난 이후 그의 생활은 그리 활기차 보이지 않는다. 그는 연구의 중심이 되는 화가 이름을 ‘티티앵 베첼리오’로

할 것인지 ‘티치아노 베첼리오’ 혹은 ‘티티앵 베첼리’로 할 것인지 결정하지도 못했고, 논문은 겨우 두 구절을 써놓고 자족하기도 한다. 그의 연구는 그가 수영을 할 때나 산책을 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의 머리 속에서 진행되지만, 사실 어떤 진척도 없다. 연구는 그에게 단지 강박관념으로 전락해버린 것처럼 보인다. 세세한 메모까지 곁들여 돌봐주기를 부탁했던 우즈네 화초도 돌보지 않아서 거의 시들고 만다. 이처럼 주인공의 일상생활이란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주인공의 이런 무기력은 마치 담배를 끊을 때 나타나는 금단현상처럼 텔레비전을 끄고 난 뒤에 그를 둘러싸고 있다.

## 텔레비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대인

그는 텔레비전을 끄고 난 뒤 주위에서 텔레비전의 유혹이 느껴질 때마다 텔레비전을 비판하기는 하지만, 완전히 텔레비전의 주사선 바깥으로 벗어나진 못했다. 뉴스가 보고 싶은 유혹을 견디기 위해 꺼진 텔레비전 화면 여기저기에 세척용 분무기를 쏘대며 공격도 해본다. 그러나 마치 무대 세트처럼 꾸며진 집안에 앉아 있는 자신이 꺼진 텔레비전 화면에 비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텔레비전이 보여주는 불거리는 아무리 현실과 유사하다 한들 그 재현에 불과하”고 “(텔레비전은) 부조리할 만큼 형식적이므로, 가령 책들은 그 자체보다 천 배 이상의 것을 제공하는 반면, 텔레비전은 그 자체만을, 그 본질적인 즉각성만을, 진행 중인 피상성만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그는 말하지만, 텔레비전 프로그램 속을 미끄러지듯이 표류했던 그는 그의 일상에서마저 표류하고 있다. 그는 “이 시각에 텔레비전을 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회의하기에 이른다.

아내와 아들이 휴가에서 돌아온 뒤 그는 아내에게 텔레비전 세트를 선물한다. 서재로 옮겨간 그의 귀에는 온갖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오고 결국 그는 아내가 부르는 소리에 못이겨 텔레비전 앞에 앉게 된다. 그는 다시 리모컨 버튼을 누르며 뉴스, 오락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드라마 속으로 표류하며 “어떤 덩어리일 뿐인 노곤한 몸뚱어리”로 돌아간 것이다. 그도 결국 시인 황지우처럼 “벗어날 수 없다”고 인정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가 텔레비전을 초탈했는지, 그 뒤에 그가 텔레비전의 유혹과 방해를 이겨내고 그의 연구를 무사히 끝냈는지는 알 수 없다. —김장근기자